

## 제42호

발행일 2021. 12. 1.

Gyeongbuk  
Happiness  
Foundation  
News

### Contents

01 |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경북형 운영 모델 개발 1p

책임연구원 안교철(경북행복재단 연구원)

02 | 경상북도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9p

책임연구원 김유리(경북행복재단 연구원)

공동연구원 김은정(부경대학교 사회복지융합전공 교수)  
허원빈(부경대학교 사회복지융합전공 교수)

법인명칭 경북행복재단  
발행·편집인 경북행복재단 이옥열  
주소 39332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155  
글로벌관 3층  
TEL 054-710-8822  
홈페이지 www.ghf.or.kr

# 경북행복 Brief

## 01

###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경북형 운영 모델 개발

#### 1. 연구 필요성 및 배경

- 현재 전국의 노인인구는 8,792,644명, 인구 대비 17%, 그 중 경북의 노인인구는 592,966명, 인구 대비 22.6%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크고 지속적으로 증가함(통계청, 2021년 10월 기준).
- 노인에 대한 복지 문제도 오래 전부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 그 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문제가 심각함.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노인의 욕구는 생명 유지와 직결되므로 노인의 복지 사각지대 진입을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김정현·한은희, 2021).
- 그런 과정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지금까지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서비스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5).
- 하지만 최근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 도전을 받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외자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인 돌봄서비스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등에서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기 때문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에서 노인을 위한 유사한 형태의 다양한 재가서비스가 확대 제공되면서,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의 기능이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현장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음(김춘남, 2013). 따라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기능과 역할 등의 재정립의 모색을 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2.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 1) 운영목적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복지 사각지대 취약 및 위기노인에게 전문사례관리를 비롯한 상담, 자원연계,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연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 2) 센터 현황

- 센터 수 : 35개소(도비 지원 30개소 : 의성, 청송 제외)

구분	경북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청도	성주	칠곡	예천	의성	청송
재가지원	35	5	4	1	1	5	1	3	1	2	1	2	1	1	2	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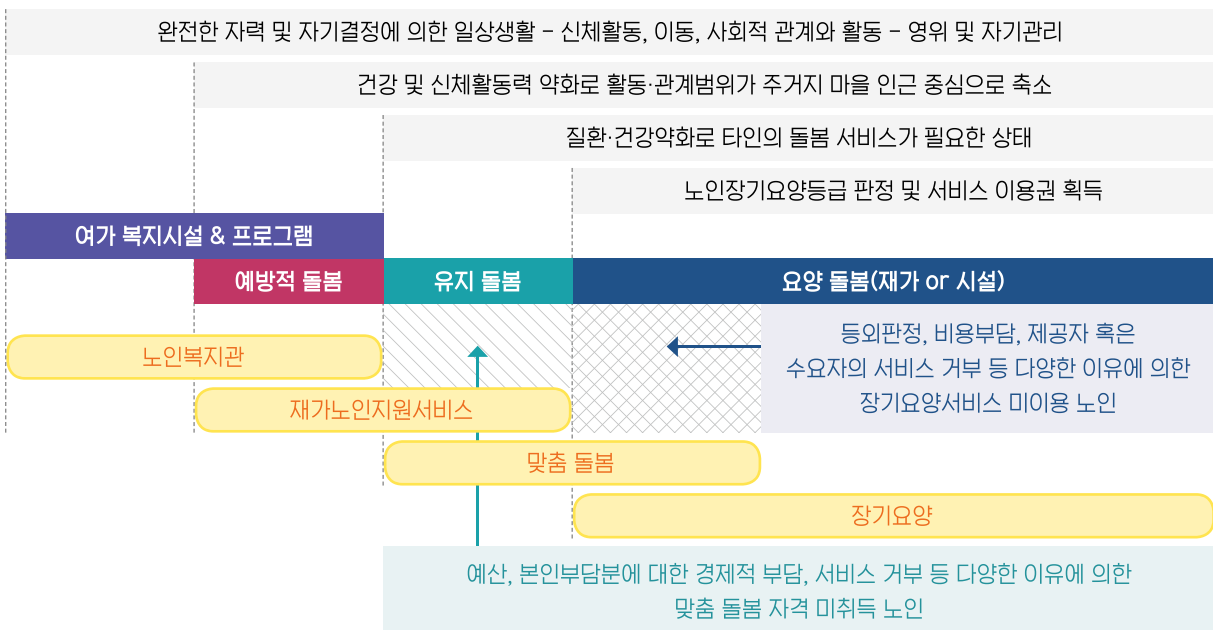
※ 미설치 시·군(7개 시·군) : 영천, 영양, 영덕, 고령, 봉화, 울진, 울릉

### 3) 센터 명칭 변경

- 센터 명칭 변경 : 2021년부터 적용(경상북도 내 한정)  
(당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변경)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방문형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대부분이 재가노인복지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동 사업 기관과 구분이 모호함.  
이에 타 요양기관과의 차별화 및 호칭의 용이성을 위해 2021년부터 1월부터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 4) 타사업과의 연계성



## 5) 사업 내용

### ■ 위기관리체계 구축

- 지역사회 내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위기관리로서 사례관리, 정보통신 기반의 일상생활 안전 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 ■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 지역 내 지속가능 거주를 위한 욕구조사 실시
- 지역사회 어르신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 ■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 지원

- 지역사회 노인의 권익옹호 및 긴급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 \* 필수핵심사업 수행(위 사업내용 중 아래의 내용 필수핵심 수행)

- 어르신 복지 종합상담 및 정보제공 : 영양·돌봄, 일자리, 사회참여 등
- 사각지대·위기 노인 발굴·보호 체계 구축·운영
- 어르신 중심 개별화 전문 사례관리

## 3. 경북형 운영 모델 개발(안)

### 1)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경북형 운영 모델 개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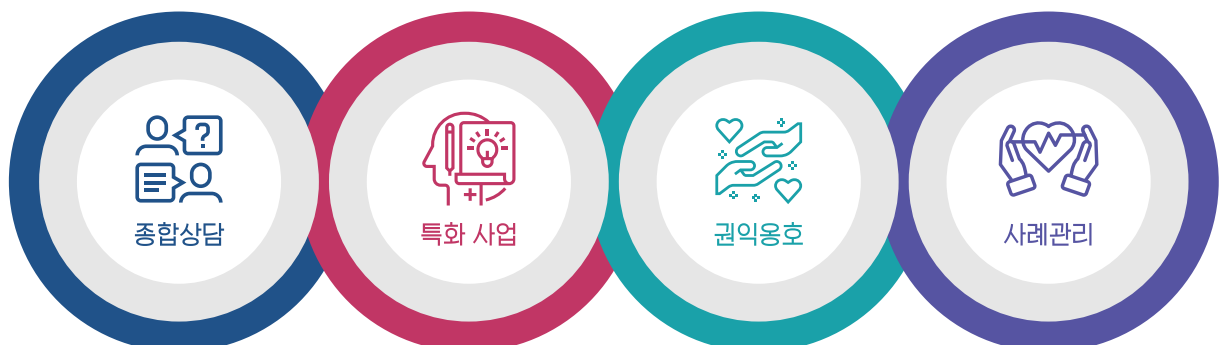
- 경북형 운영 모델 개발 TF팀 구성 : 경상북도, 경북행복재단, 경북재가노인복지협회 등
- '21. 3월부터 8월까지 총 17차례 TF팀 회의를 통한 운영 모델 개발 :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타 시·도 운영 방향, 관계 사업 검토, 학계전문가 및 현장전문가 자문을 통한 운영 모델 개발
- '21. 11월부터 경북형 운영 모델 시범사업 시행

### 2) 경북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 모델(안)

- 4대 사업(종합상담, 특화 사업, 권익옹호, 사례관리)을 주축으로 하는 경북형 운영 모델 개발

####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주요기능 및 역할

기본기능(위기대응서비스 & 위기대응체계구축)



(1) 재가노인통합지원서비스의 목적

■ 재가노인통합지원서비스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복지 사각 지대의 취약 및 위기 노인에게 종합상담(1533-3535)을 비롯한 전문사례관리, 위기에방, 권익옹호, 자원 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연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예방적·보편적 복지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함.

건강한 Aging In Place(A.I.P) 실현을 위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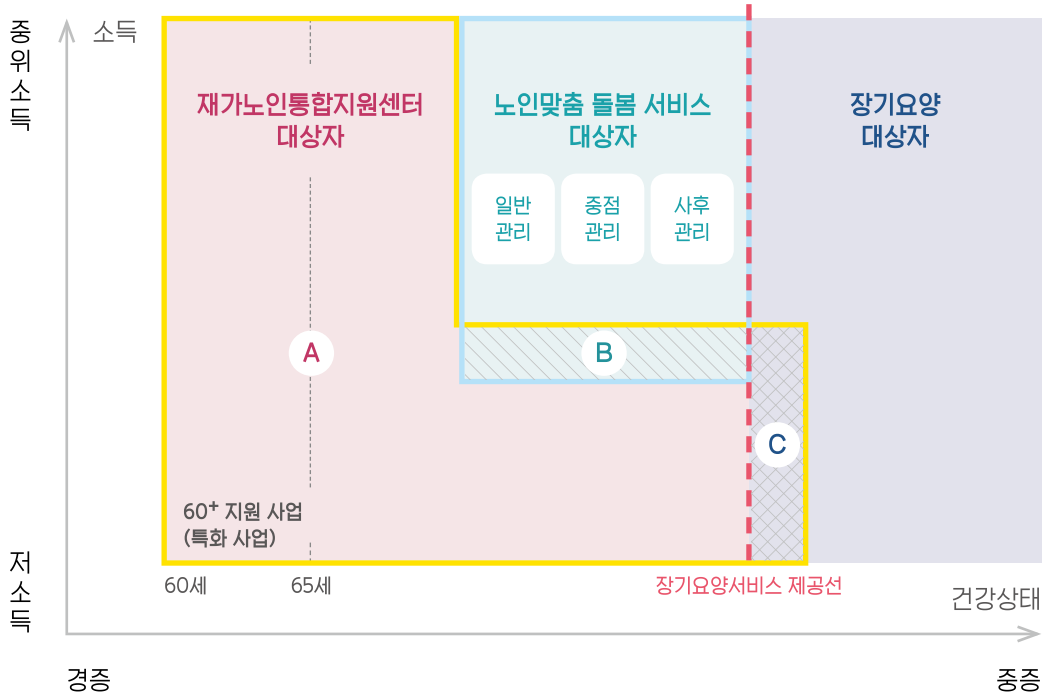
(2) 재가노인통합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

■ 이용대상 범위

재가노인통합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에 명시된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종합상담(1533-3535)은 노인의 가족과 지역주민 등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고, 60+지원 사업(특화 사업)은 60세 이상의 희망자에 대해서도 제공 가능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
경도인지장애, 알코올 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노인장기요양,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등) 이용자 중 재가노인통합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노인
긴급 지원이 필요한 노인(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자 포함)
기타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이 의뢰한 사람

지역사회 거주노인



- ※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서비스의 대상 노인 : A, B, C
- A : 재가노인통합지원서비스 우선대상자 : 장기요양,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
  - B : 재가노인통합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등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 C : 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로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3)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의 4대 사업(경북형 운영모델)

■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모든(신체, 정신, 경제, 사회적) 위기 요인에 대한 대응으로 노인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4대 중점사업(종합상담, 60+지원 사업, 권익옹호, 사례관리)을 균형 있게 수행하여야 함.

■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의 사업

종합상담(1533-3535)

노인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상담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노인복지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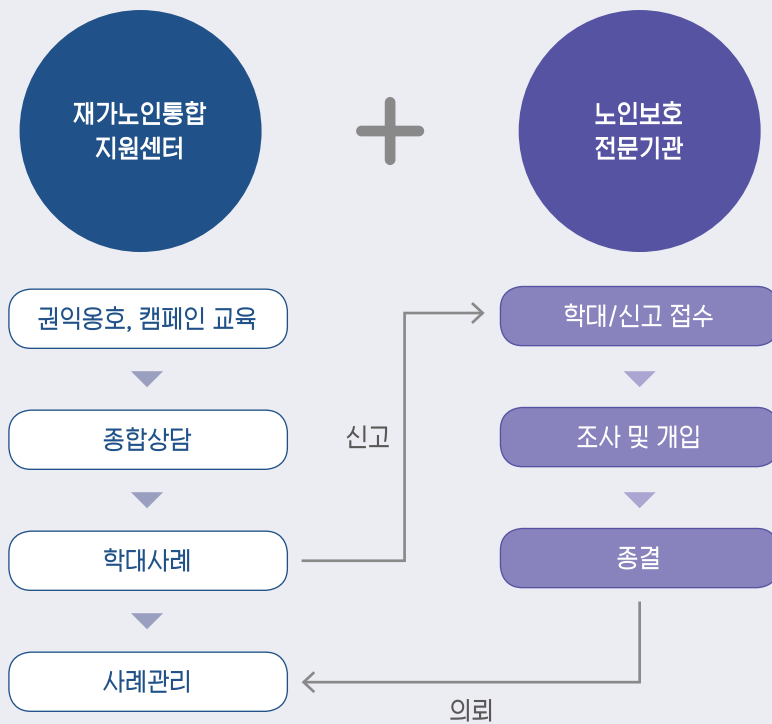
### 60+ 지원 사업(특화 사업)

60세 이상의 예비노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성공적 노후를 위한 인생설계 프로그램 진행



### 권익옹호

노인의 위기상황에 협력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대상황을 예방하거나 개입하며 피해예방, 주민 인식 증진 등으로 노인의 권리 옹호



### 사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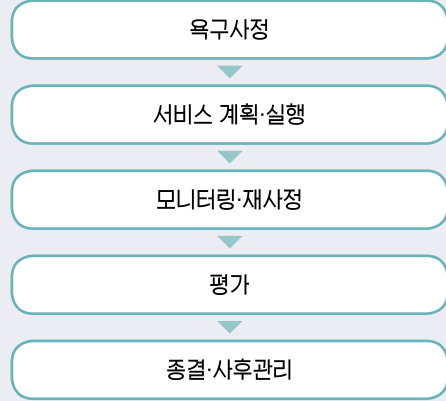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노인을 발굴하고, 초기상담을 통해 필요여부를 판단하며, 욕구 사정과 계획을 통해 개별 맞춤형으로 개입하며, 점검과 평가를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지원

사례관리 개별욕구를 바탕으로 한 사례관리



지역 내 연계협력체계 구축 - 경북형 매뉴얼 개발 보급

#### 사례관리 과정



#### (4)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체계도

■ 경북형 운영 모델에 따른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체계 변화

####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체계도



### 3)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경북형 운영 모델 실현

- 경북형 운영 모델 개발 후 4대 중점사업 매뉴얼 구성('21. 10.)
-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에 매뉴얼 보급 및 직원 교육('21. 11.)
-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경북형 운영 모델 사업 홍보('21. 11.)
- '21. 11월부터 시범사업 운영 : '1533-3535' 종합상담 전화 개통 후, 각 센터에서 이용자 욕구에 대한 대응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직원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 노력



**경북의 대표적 노인복지를 위한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

❖ **참고문헌**

경북행복재단. 2020. 경상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지표 개발 및 활성화 방안.  
 경상북도청. 2021. 2021년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안내. 어르신복지과.  
 김정현·한은희. 2021. 노인복지 사각지대 발굴 가능성 향상을 위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76(3). 65-90.  
 김춘남.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경기복지재단.  
 보건복지부. 201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전용호·김춘남.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필요성과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1(1). 275-304.  
 통계청. 2021. 2021년 노인인구 통계.

**SPECIAL COMMENT**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경북형 운영 모델 개발**



**권영만** 경북재가노인복지협회장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경북형 운영 모델 개발은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의 보편적 실행(2026년)을 앞두고 노인 돌봄전달체계에서 경북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의미미한 연구였다. 이에 경북형 운영 모델의 성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종합상담(1533-3535)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노인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상담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등 노인복지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어르신 콜센터(1533-3535)'를 개설하였다 할지라도 도민이 이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그러기에 현수막 게시, 전단지 제작·배포, 지역 언론 보도자료 배포, 시·군 소식지를 통한 홍보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경북도 및 시·군 차원의 홍보노력도 필요하지만 종합상담 수행기관인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의 자체 홍보는 절대적이다.

**둘째, 경북형 운영 모델의 조기 정착을 위한 회원시설의 변화가 필요하다.**

경북형 운영 모델은 보건복지부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내용을 기반으로 종합상담, 60+ 지원 사업, 권익옹호, 사례관리의 4대 사업이 주축을 이룬다. 20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시작과 더불어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의 정체성에 의문점이 제기되는 시점에 경북형 운영 모델 개발은 시의적절하였다고 본다. 이 경북형 운영 모델의 성공 유무는 오롯이 회원시설의 몫이다. 회원시설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등의 변화만이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의 불후(不朽)를 결정하는 것임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 02

## 경상북도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 1. 연구 배경 및 추진방향

- 2000년대 이후 소득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지나친 경쟁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로 인해 청년세대의 정신건강은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음. 2021년 2분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보면, 우울 위험군의 비율은 20대 24.3%, 30대 22.6%로 50대와 60대 (각 13.5%) 보다 1.5배 이상 높음.
- 청년세대의 정신건강 문제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만, 청년 대상 사회정책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들은 대부분 고용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경북의 청년세대는 경북의 미래임. 청년들이 경북에서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경북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경북의 핵심적 정책이 되어야 함. 이들이 경북지역에 머무르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함. 이에 경북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구조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경상북도 청년들의 정신건강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의 정신건강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경북 청년세대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본 내용은 경북행복재단(2021)에서 수행된 '경상북도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 2. 실태조사 결과<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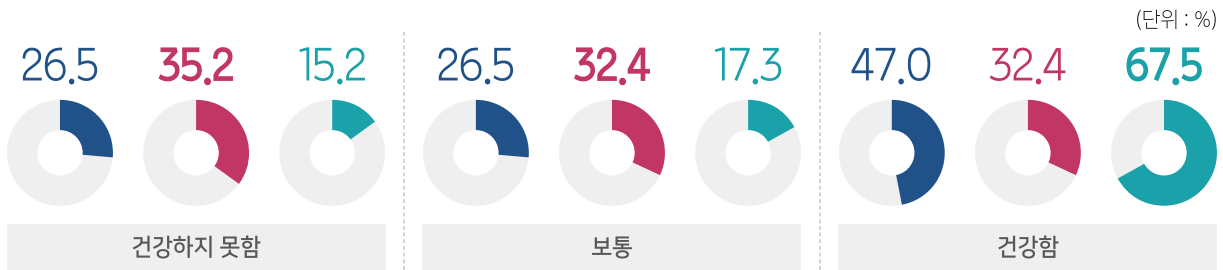
#### 1) 재학생/미취업자/취업자에 따른 정신건강 상태

- 재학생/미취업자/취업자에 따른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를 보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미취업자 (35.2%)가 가장 높으며 재학생(26.5%), 취업자(15.2%) 순임. 자살생각경험도 미취업자(28.4%), 재학생 (24.5%), 취업자(10.1%) 순임. 우울의 점수를 보면, 미취업자의 점수가 cut-off 16점을 넘긴 17.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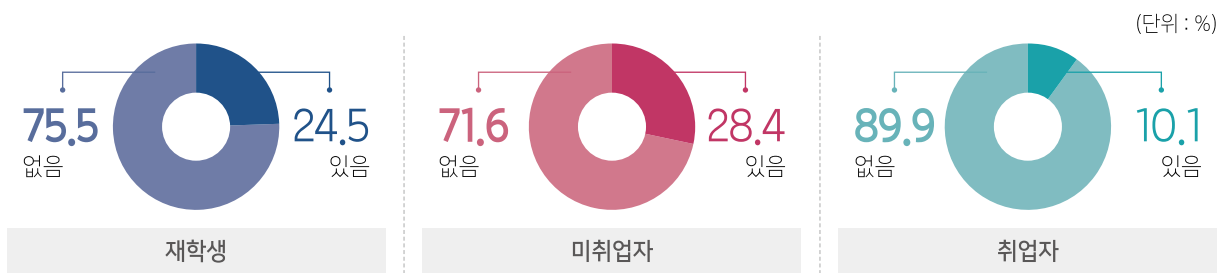
1) 경상북도 내 거주하는 만 19~34세까지 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함. 표본은 인구비례할당으로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음.

구분		재학생/미취업자/취업자		
		● 재학생	● 미취업자	● 취업자
주관적 정신건강	건강하지 못함	26.5	35.2	15.2
	보통	26.5	32.4	17.3
	건강함	47.0	32.4	67.5
자살생각경험	있음	24.5	28.4	10.1
	없음	75.5	71.6	89.9
우울(cut-off=16)(평균)*		13.3	17.8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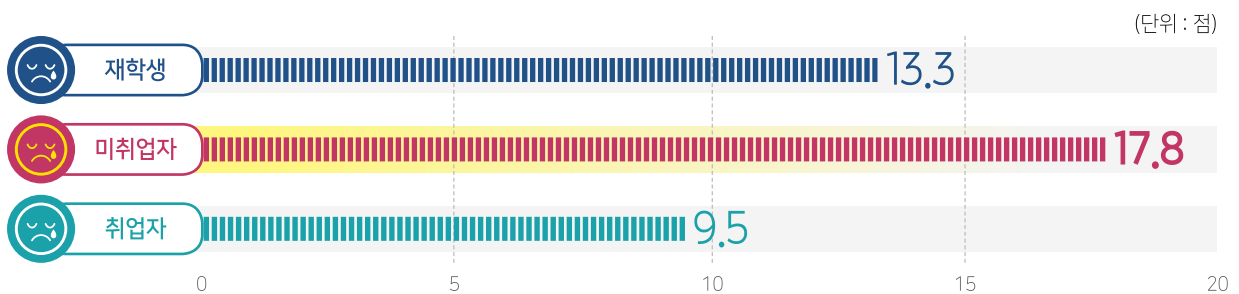
\* 총점 33점 중 16점이 넘으면 우울 위험군에 속함.



[그림 1] 재학생/미취업자/취업자에 따른 주관적 정신건강 차이



[그림 2] 재학생/미취업자/취업자에 따른 자살생각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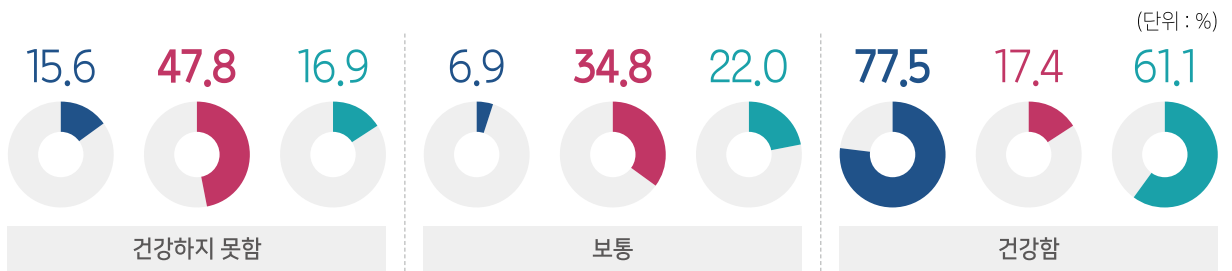


[그림 3] 재학생/미취업자/취업자 우울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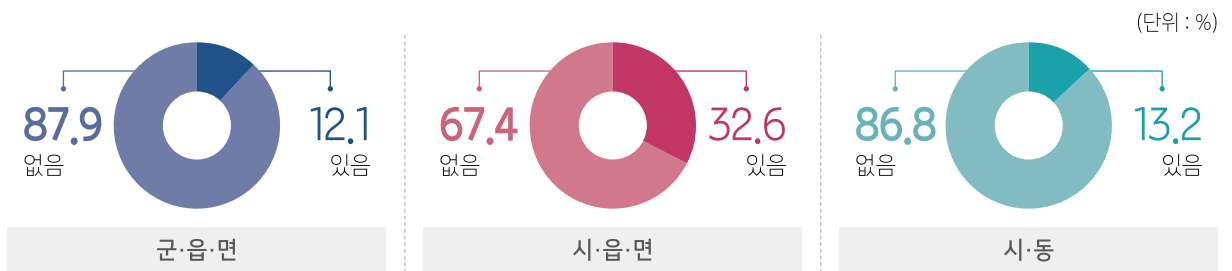
## 2) 지역에 따른 정신건강 상태

■ 지역에 따른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를 보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시의 읍·면지역에서 47.8%로 매우 높음. 자살생각경험 역시 시의 읍·면지역(32.6%)이 가장 높으며 시의 동(13.2%), 군의 읍·면(12.1%) 순임. 우울의 점수를 보면, 시의 읍·면 점수가 cut-off 16점을 넘긴 20.7점으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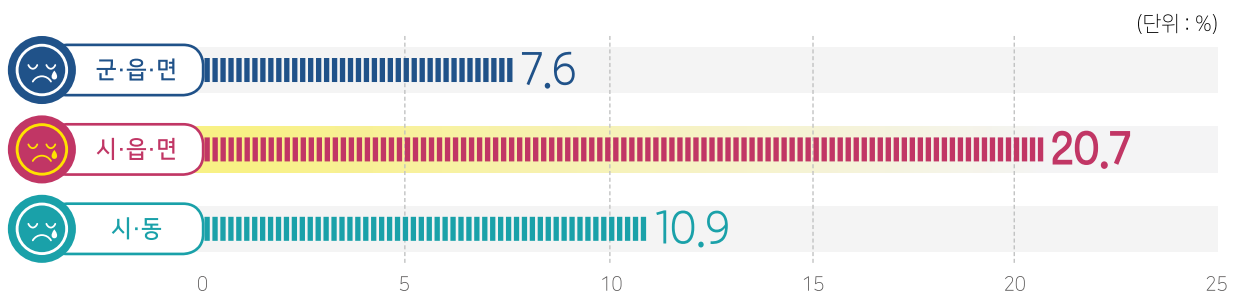
구분		거주지역		
		● 군·읍·면	● 시·읍·면	● 시·동
주관적 정신건강	건강하지 못함	15.6	47.8	16.9
	보통	6.9	34.8	22.0
	건강함	77.5	17.4	61.1
자살생각경험	있음	12.1	32.6	13.2
	없음	87.9	67.4	86.8
우울(cut-off=16)(평균)		7.6	20.7	10.9



[그림 4] 지역에 따른 주관적 정신건강 차이



[그림 5] 지역에 따른 자살생각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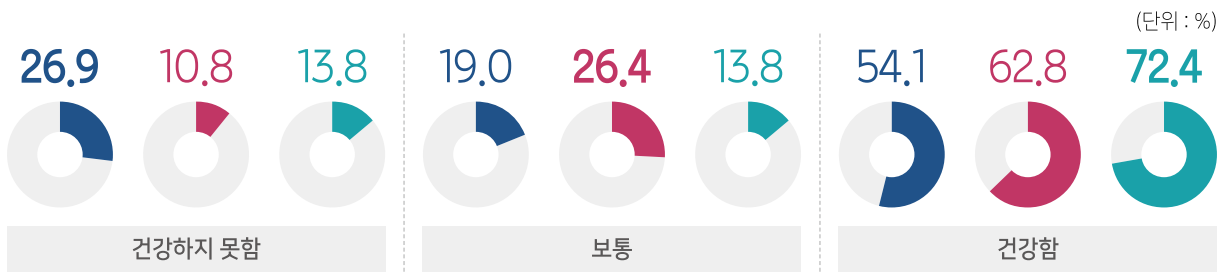


[그림 6] 지역에 따른 우울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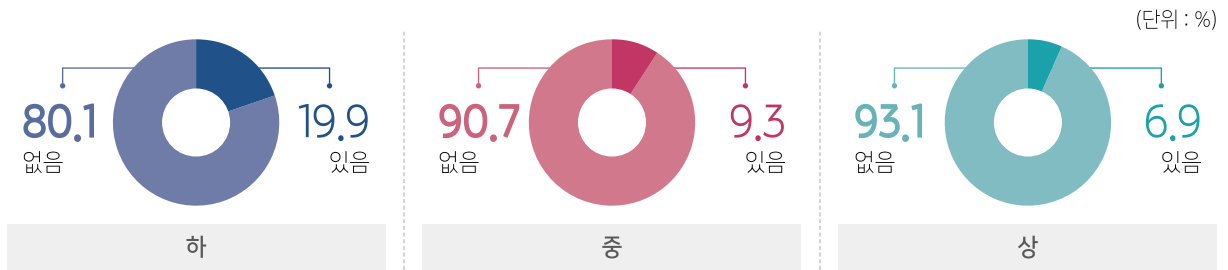
### 3) 경제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 상태

■ 경제 수준에 따른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를 보면, 경제 수준을 '하'수준으로 인식한 집단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26.9%로 높았음. 자살생각경험 역시 '하'집단에서 19.9%로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낮음. 또한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우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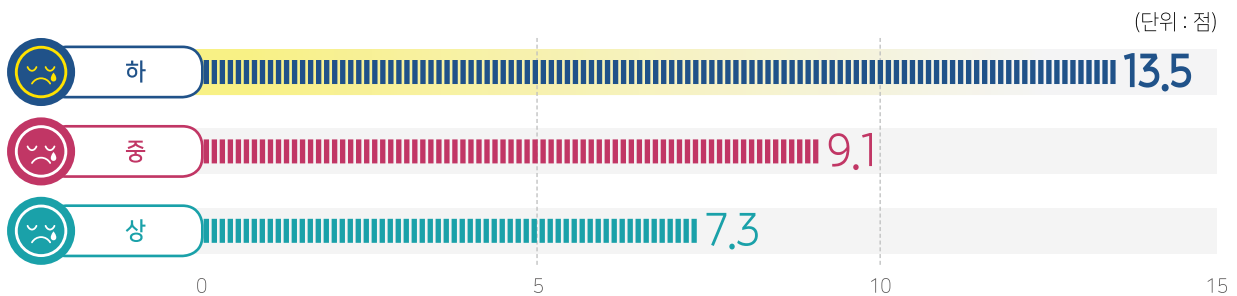
구분	경제 수준			
	● 하	● 중	● 상	
주관적 정신건강	건강하지 못함	26.9	10.8	13.8
	보통	19.0	26.4	13.8
	건강함	54.1	62.8	72.4
자살생각경험	있음	19.9	9.3	6.9
	없음	80.1	90.7	93.1
우울(cut-off=16)(평균)		13.5	9.1	7.3



[그림 7] 경제 수준에 따른 주관적 정신건강 차이



[그림 8] 경제 수준에 따른 자살생각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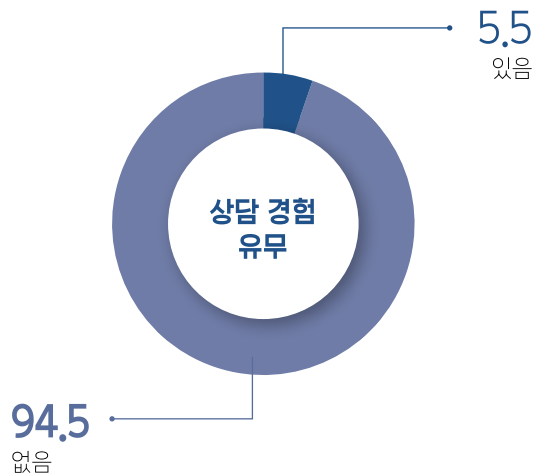


[그림 9] 경제 수준에 따른 우울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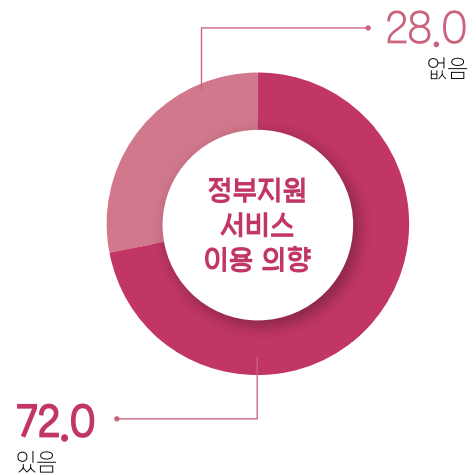
#### 4) 정신건강 상담 경험 유무 및 정부지원서비스 이용 의향

- 연구참여자의 정신건강 상담 경험 유무를 보면 상담 경험이 있다는 비중은 5.5%에 불과하였으나 향후 정부 지원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는 비중은 72.0%로 매우 높았음.

(단위 : %)



[그림 10] 상담 경험 유무



[그림 11] 정부지원서비스 이용 의향

### 3.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정부지원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청년과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음.

#### 1) 청년 대상

- 청년 8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참여자는 재학생 3명, 휴학생 1명, 졸업생 1명, 취업생 3명으로 구성되었음.

#####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욕구

- ▶ 병적인 치료 목적으로만 인식하는 경향
- ▶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담보에 대한 욕구
- ▶ 높은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욕구

##### 정부지원 정신건강서비스 활성화 방안

- ▶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 ▶ 서비스 대상에 맞는 맞춤형 상담 제공
- ▶ 적극적인 서비스 홍보
- ▶ 서비스의 지속성 보장

## 2) 실무자 대상

- 민간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학 내 상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발전소 현장실무자 각 1명씩 총 5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함.

### 상담제공 시 어려운 점

- ▶ 초기접촉의 어려움
- ▶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상담 제공
- ▶ 청년들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으로 지속적인 상담 불가

### 정부지원 정신건강서비스 활성화 방안

- ▶ 상담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 대학, 직장 등 청년이 밀집된 조직에서 상담서비스 의무화
- ▶ 상담제공자의 전문성 제고
- ▶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 상담 프로그램 개발

## 4. 제언

### 1) 정책접근성 증진

#### 정보접근성 강화

정신건강의 중요성, 정신건강의 개선 가능성, 정신건강서비스 효과성 등을 공익광고, SNS, 웹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필요

#### 심리접근성 증진

정신건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개선이 필요. 누구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고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치료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

#### 물리접근성 확보

시·군 별로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으로는 물리접근성을 높이기 어려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청년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재정접근성 증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들에게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시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 청년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여 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권장

## 2) 정책대상의 보편화

- 정부지원서비스 이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거나 서비스 이용 시 공공의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많은 청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예를 들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소득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을 청년세대의 경우 보다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이 필요

## 3) 정책 내용의 내실화

- 청년기는 재학, 졸업, 취업 등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함. 생애과정별 서비스들이 상호 연결되어 공급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체계가 촘촘하게 구축되어야 함. 대학생들은 진로설정·취업관련 상담서비스, 미취업 청년에게는 자존감과 자신감 향상지원 서비스, 취업 청년에게는 대인관계나 이직 등 관련 상담이 필요

## 4) 정책 전달체계 혁신

- 청년 인구가 희소하게 분포하는 지역이 있는 경북에서 서비스 전달 채널을 다양화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가령 비대면 상담방식(실시간 비대면 Zoom 방식), SNS를 활용한 대화식 상담방식 등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하며 경북 산간지역의 경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의 확산이 필요

### ❖ 참고문헌

강문선·이영순·권혁철. 2019. 청년실업자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43(3), 179~207.

보건복지부·삼성서울병원. 2016. 2016년 정신질환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2분기「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양재원. 2019. 전환기 젊은이들의 정신건강문제 -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 대학에서의 정신건강.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47~154.

MentalHealth.gov. 2020. What is mental health?. Retrieved from <https://www.mentalhealth.gov/basics/what-is-mental-health>. 05.14.21.

### SPECIAL COMMENT

### 경상북도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 이 광 현 경상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

경상북도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시행한 이번 조사는 청년들이 가진 고민의 현주소를 보여주어 의미가 있다.

청년의 취업이나 재학 여부, 지역적으로 도시나 농어촌 거주 여부 등에 따른 우울이나 불안 혹은 자살사고의 차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경상북도의 청년들이 하는 걱정이나 고민은 무엇이고, 왜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집중하게 되는 지에 대한 고찰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첫째**, 청년들이 지역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나 방향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둘째**, 실질적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이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를 듣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이번 조사에 언급한 지역에 따른 접근성과 계층에 따른 접근성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찾는 고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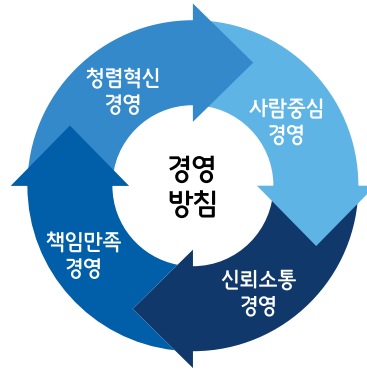
경상북도 청년들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들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나 창구가 필요할 것이다.

## 경북행복재단 미션 및 비전

밝은 내일, 도민이 행복한 경북!

**MISSION** | 경상북도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가치 실현

**VISION** | 지역 사회서비스 미래를 열어가는 전문기관



### 경영목표 & 추진전략

사회서비스 정책연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인력 역량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b>지역 수요 맞춤형 정책 개발 및 대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연구 수행 및 기초통계 구축</li> <li>• 사회서비스 협력체계 기반조성 및 학술대회 개최</li> <li>• 도·시·군 및 현장 요구의 맞춤형 대응</li> </ul>	<b>사회서비스 기관 현장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 현장 개선과제 발굴</li> <li>• 컨설팅·평가·인증</li> <li>• 시설운영·평가 표준 매뉴얼 개발 및 보급</li> </ul>	<b>보건복지 관련 교육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교육콘텐츠 개발·운영</li> <li>• 사회서비스 현장 교육 수요 조사</li> <li>• 교육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li> </ul>	<b>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인권,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및 확산</li> <li>• 노동환경, 안전 등 사람중심 안전사회 구축</li> <li>• 도민참여, 상생협력 등 참여중심 협력 사회 구축</li> </ul>



2년 연속(2020, 2021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 S등급' 달성

편집위원 김종필, 강민정, 김동화, 오난숙.

「경북행복 BRIEF」는 경북행복재단의 보건·복지 연구성과 및 주요 동향을 경상북도민에게 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격월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